

# 방한용 전통배자의 재현과 현대적 활용을 위한 디자인 연구

김 월 계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 요 약

한국 전통 복식은 오랜 역사 속에서 외래문화와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복식문화를 이어왔다. 서양복을 평상복으로 착용하는 현대인들에게 한복의 착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한복을 착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벌로 구성된 옷보다는 단품형태의 디자인 개발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배자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착용되어진 소매가 짧거나 없는 형태의 복식으로 다양한 이너웨어 위에 코디네이션해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며 현대인들이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배자를 응용한 복식을 현대인들이 실생활에서 착용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배자는 삼국시대부터 착용되었고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었다. 현대적인 디자인을 위한 배자의 특징은 소재와 맞깃, 옆선, 여밈 방법, 배자 길이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배자유물이 남아있는 조선시대 배자 중 방한을 목적으로 한 털배자, 누비 배자, 솜배자를 선정하여 가능한 한 유물 그대로 재현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재 중 울, 체크, 스웨이드, 데넬을 이용하여 색채와 디테일에 변화를 통하여 현대배자로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재현한 배자와 현대적으로 디자인 된 배자를 같은 복식 위에 코디네이션 하는 방법을 제시하므로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전통복식을 착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통복식은 단순한 옷 이상의 의미로 그 속에 내재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다음 세대에 이러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계승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주제어: 배자, 조선시대, 재현, 코디네이션, 전통복식의 현대화

위 논문은 2010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 2010년 5월 28일, 수정논문접수일: 2010년 7월 7일, 게재확정일: 2010년 7월 9일

교신저자: 김월계, weolkyekim@yahoo.com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전통복식은 각 나라 고유의 에스닉한 특징이 융합과 진화를 통하여 새롭게 생산되는 양상을 지닌다. 한국 전통 복식은 오랜 역사 속에서 외래문화와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복식문화를 이어왔다. 2000년대 들어서 한류 열풍과 정부 지원의 한 브랜드 사업 등은 일반인들에게까지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사극이나 영화의상에서는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한복 디자인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양복을 평상복으로 착용하는 현대인들에게 한복의 착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한복 진흥을 위한 기초실태조사(2007)에 따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연령대로는 20대·50대·60대가, 성별로는 여성이, 직업은 학생과 전업 주부가 전통한복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와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 전통 및 퓨전 사극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전통한복의 착용성과 관리성, 실용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착용성과 관리성을 개선한 전통 한복 개발과 다양한 상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사를 참고하여 볼 때 착용성과 관리성이 좋으며 다양한 연령대에서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한 벌로 구성된 옷보다는 단품형태의 디자인 개발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배자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착용되어진 소매가 짧거나 없는 형태의 복식으로 계절에 따라 겨울에 착용하는 방한용 배자, 춘추용의 겹배자, 여름용의 개끼배자로 나눌 수 있으며 다양한 복식 위에 코디네이션해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최근에는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

하여 다양한 배자디자인이 제시되고 있다. 배자 관련 연구로는 전통배자의 역사와 변천을 고찰한 박두이(1998)<sup>2)</sup>의 연구와 나현신, 변지연, 문지현, 조윤주(2009)<sup>3)</sup>의 전통배자를 응용한 노년기 조끼 디자인 개발 연구, 류정민(2010)<sup>4)</sup>, 부혜성(1999)<sup>5)</sup>과 이은형, 조효숙(2009)<sup>6)</sup>의 전통배자를 응용하여 현대복식에 맞도록 디자인 한 연구 등이 있다. 배자 관련 연구는 디자인 개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정한 배자 유물을 응용하여 디자인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기능성과 장식성을 가지고 있는 방한용 배자로 한정하여 재현하고 소재변화를 통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점이 있으며 재현 배자와 현대적으로 디자인 된 배자를 같은 복식 위에 코디네이션 한 모습을 제시하므로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전통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재현배자와 재해석된 디자인의 배자가 모두 현대 복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므로 전통복식이 일상생활에서 무리 없이 착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전통복식은 단순한 옷 이상의 의미로 그 속에 내재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다음 세대에 이러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계승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으로는 배자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박물관 도록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배자의 기원 및 역사, 특징을 살펴본 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재현 배자 및 현대적인 디자인의 배자를 직접 제작한다. 연구의 범위는 배자유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조선시대 방한용 배자로 한정하였다. 방한용 배자는 기능성과 장식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남녀노소 모두

착용하였던 복식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이 착용되고 있어 선택하였다. 방한용 배자는 털배자, 누비배자, 솜배자로 종류를 나눌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털배자, 누비 배자, 솜배자 4점을 선정하여 가능한 한 유물 그대로 재현하고 같은 형태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재, 색채, 디테일 변화를 통하여 새롭게 디자인한 배자 4점을 제작하였다. 작품을 위한 유물선정 기준은 오늘날까지 착용되는 배자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선택하였다. 춘추용의 겹배자와 여름용의 개기배자는 후속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배자(褙子)의 개념 및 역사

배자의 사전적 의미는 추울 때에 부녀자들이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으로 조끼와 비슷하나 주머니와 소매가 없으며, 길감은 흔히 양단을 쓰고 안에는 토끼나 너구리 따위의 털을 넣은 옷<sup>7)</sup> 또는, 저고리 위에 입는 조끼 모양의 옷으로 소매가 있는 형태, 없는 형태, 그리고 반소매 형태<sup>8)</sup>의 옷이다. 이경자, 홍나영(2003)은 배자를 앞여밈이 겹쳐지지 않고 마주 보는 형태의 옷으로 정의하였다.<sup>9)</sup> 박성실(2005)은 배자를 褙子, 褙子 또는 등걸이, 背巨里라고 표기한다고 하였다.<sup>10)</sup> 배자는 대체로 저고리 길이와 유사하여<sup>11)</sup> 포 길이의 답호(搭護)나 전복(戰服), 쾌자(快子) 등과는 구분된다. 종합해보면 배자는 소매가 없거나 짧으며 저고리 길이의 앞이 여며지지 않는 형태의 복식이라 볼 수 있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변화하였고 성별에 따라 형태에 차이가 있었다.

배자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실총 벽화의 남자상을 보면 유(襦) 위에 소매가 짧고 엉덩이 길이의 배자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1>.<sup>12)</sup> 통일신라 때에는 당의 복식문화가 유입되었는데 당대는 소매 없는 반비(半臂)가 착용되었고 통일신라에도 전해져 상류계층에서 착용되었음을 흥덕왕 복식금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고려시대에는 “군복에서 흥배자를 착용하였다”<sup>14)</sup>고 되어 있어 배자가 지속적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형태나 소재, 구성상의 특징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하여 조선시대에는 시기별로 다양한 배자가 유물로 남아 있으며 개화기까지 남녀노소 모두 애용하였던 복식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배자는 유물을 중심으로 2장에서 살펴보았다.

배자의 종류에는 방한을 목적으로 하는 털배자, 누비배자, 솜배자가 있으며 봄가을에는 사(紗), 단(緞)으로 만든 겹배자를 저고리 위에 겹쳐 입었다. 여름에는 모시나 삼베를 이용하여 만든 홑배자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양복 위에 방한을 목적으로 손쉽게 겹쳐 입을 수 있는 털배자, 누비배자, 솜배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 2. 조선 시대 방한용 배자 특징

본 연구에서는 유물이 현전하는 조선시대의 털배자, 누비배자, 솜배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배자의 형태는 시기별로 형태에 변화가 있었고 남녀 간에도 차이도 있었다. 유물을 토대로 방한용 배자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털배자는 중부 이북지방에서 더 많이 착용되었으며 조선 후기의 유물이 대부분이다. <그림 2>는 남자용 털배자로 갈색의 화문단(花紋緞) 안에 흰색 털을 받쳐 넣었고 겨드랑이 아래 고름을 달아 앞에서 여밀 수 있는 형태이다. <그림 3>도 남자용 털배자로 검은 상아색 단이며 안에 갈색 털을 넣었다. 좌식생활에 편리하도록 앞길의 길이를 짧게 하고 겨드랑이 아래 끈을 달아 여몄다. <그림 4>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여자용 털배자



<그림 1> 배자, 고구려 삼실총 벽화 (출처: 『집안 고구려 고분벽화』<sup>15)</sup>, 1993, p.160)



<그림 2> 남자용 털배자 (출처: 『한국복식문화사』, 2002, p.293)



<그림 3> 남자용 털배자 (출처: [http://www.nfm.go.kr/nfm.dasen?cmd=mu-seum-view&ac=p.196.](http://www.nfm.go.kr/nfm.dasen?cmd=mu-seum-view&ac=p.196))



<그림 4> 여자용 털배자 (출처: 『우리옷과 장신구』, 2003, p.249)



<그림 5> 여자용 털배자 (출처: 『名選 下』, 2005, p.164)

로 걸감은 봉황과 매화, 대나무가 수놓인 청록색 양단에 가장자리에 검정색으로 곱게 선을 치고 모전을 덧대었으며 안에는 갈색 토끼털을 넣었다. <그림 5>는 20세기의 털배자로 걸감은 소색 숙고사로 하고 안은 흰색 털을 대었다. 배자는 20세기 중반까지도 대중적으로 많이 착용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자용 배자에는 대개 끈이 달려 있지 않았다. 털배자의 경우 남자용은 허리 아래 길이로 길고 끈이 달려 있어 앞에서 여미는 형태이며 옆선이 모두 트여있거나 부분적으로 트인 반면 <그림 2>, <그림 3>, 여자용은 저고리 길이와 비슷한 길이로 짧고 끈이 없으며 옆선은 막힌 형태이다 <그림 4>, <그림 5>. 어깨의 폭과 옆선의 길이, 앞뒤판이 같거나 앞판이 짧은 형태 등 형태상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앞이 서로 마주보는 대금(對襟)형이라는 점과 실이나 무가 없는 점은 같았다. 김여온의 누비 배자는 앞이 길고 마상의(馬上

衣)로 적합하도록 뒤가 짧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깃이 없고 소매가 짧은 형태에 세 개의 단추로 여미도록 되어 있으며 걸감은 투주(吐紬), 안감은 명주로 1cm 간격으로 곱게 누볐다 <그림 6>. <그림 7>은 은진 송씨의 누비배자로 짧은 소매가 달렸으며 깃이 없고 2cm간격으로 누빈 겹누비이며 짧은 고름으로 여미는 형태이다. <그림 8>은 홍진중 묘 출토 배자로 앞이 길고 뒤가 짧은 형태이며 앞 뒤판을 양옆의 좁은 끈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적이다. 걸안감 모두 명주이며 1cm간격으로 곱게 누볐다. <그림 9>는 이변 묘 출토 배자인데 화문주로 걸감을 쓰고 안은 명주로 받쳐 솜을 두고 누빈 옷이다. 등에서 어깨로 연결된 넓은 끈을 앞에서 겨드랑이 아래 고리에 걸어 교차하여 입는 특징적인 형태이다. <그림 10>는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배자로 흰색 명주에 솜을 두어 곱게 누볐으며 겨드랑이 아래 고리를 달아 끈을 걸어 앞판에서 묶어 여미는



<그림 6> 김여온 묘 출토 누비배자(1596-1665) (출처: 『길짐승 흥배와 함께 하는 17세기 무관 옷 이야기』<sup>16)</sup>, 2006, p.47)



<그림 7> 은진 송씨 묘 출토 누비배자(17세기 말) (출처: 『한국복식 이천년』<sup>17)</sup>, 1995, p.105)



<그림 8> 홍진중 묘 출토 배자(1647-1702) (출처: 『한국복식 이천년』, 1995, p.117)



<그림 9> 이변 묘 출토 누비배자(1636-1731) (출처: 『名選 中』<sup>18)</sup>, 2004, p.147)



<그림 10> 누비배자 (출처: 『우리옷과 장신구』, 2003, p.254)



<그림 11> 동래 정씨일가 묘 출토 솜배자(1574-1669)  
(출처: 「名選 中」, 2004, p.146)



<그림 12> 은진 송씨 묘 출토 솜배자(1509-1580)  
(출처: 「名選 下」, 2005, p.162)



<그림 13> 동래 정씨일가 묘 출토 솜배자  
(출처: 「名選 中」, 2004, p.145)



<그림 14> 파평 윤씨 묘 출토 솜배자(1735-1754)  
(출처: 「名選 下」, 2005, p.163)

형태이다. 누비배자는 솜을 두고 누빈 경우와 솜을 두지 않고 겹으로 누비기도 하였다<그림 6>, <그림 7>. 깃의 경우 없는 경우<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와 깃이 있는 경우<그림 10>가 있었다. 그리고 짧은 소매가 있는 경우에서부터 소매 없이 좁은 어깨로 구성된 경우가 보였다. <그림 6>과 <그림 8>은 앞이 길고 뒤가 짧은 형태가 특징적이었다. 저고리 길이의 배자는 평상복으로 방바닥에 앉을 때 편하도록 앞판이 짧게 구성된 경우가 많은 반면 이보다 길이가 긴 배자는 말을 탈 때 뒤판이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짧게 구성하였다. 옆선은 트인 형태에 단추나, 짧은 끈으로 고정된 형태 또는 긴 끈을 양 옆선에서 앞으로 돌려 묶는 형태로 어깨너비, 배자 길이, 여밈 방법, 옆선의 고정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림 11>은 동래 정씨 묘 출토 배자로 걸감은 팔보문단이며 안감은 주를 사용하였다. 앞판은 뒷길과 연결한 넓은 끈을 겨드랑이 아래 고리에 꿰어 여며 입도록 구성한 등거리 형태의 배자이다. <그림 12>은 은진 송씨 묘 출토 배자로 두꺼운 솜을 넣고 심감으로 닥종이를 사용하였다.<sup>19)</sup> 대금형에 칼깃이 달려 있고 양옆은 트여 있으며 얇고 긴 끈을 달아 여밀 수 있게 하였다. <그림 13>는 안은 명주로 구성된 방령깃의 배자이다. 옆은 완전히 트여있고 깃의 색을 몸판보다 짙은 색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14>는 파평 윤씨 묘 출토 배자로 걸감은 명주, 안감은 면포를 사용하여 얇은 솜을 둔 솜배자이다. 앞은 매듭단추 두 개로 여

미고 앞 뒤판이 떨어진 형태이며 옆선에 넓은 끈을 달아 앞 뒤길을 고정시켰다. 솜 배자는 등거리 형태와 소매 없는 형태가 보였으며 깃은 칼깃<그림 12>과 방령<그림 13>, <그림 14>을 볼 수 있었다. 옆선은 완전히 트이고 끈으로 연결한 형태와 막힌 형태가 있었다.

누비배자와 솜배자는 출토 시기가 광범위하여 배자의 길이와 소매의 유무, 어깨의 넓이, 깃의 유무와 다양한 깃, 옆선의 트임, 단추나 고름을 이용하여 여미거나, 여미지 않는 방법으로 특징이 다양하게 보였다. 반면, 털배자 유물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의 것이므로 형태상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설과 무가 없이 앞에서 마주보는 대금형이라는 점과 소매가 없거나 아주 짧은 형태인 점, 길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포의 길이보다 짧고 대개 저고리와 비슷한 길이라는 점이 같았다. 소재에 있어서는 겨울용이므로 걸감으로 단과 명주가 주로 쓰였고 안감으로는 명주가 많이 쓰였다. 한편 파평 윤씨의 배자에서와 같이 안감으로 면포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현대에는 조선 후기부터 착용된 배자의 형태가 많이 착용되고 있다. 배자는 같은 시기라도 성별 또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였으며 대체로 후대로 갈수록 맞깃이 달리고 털배자 유물과 같은 남녀의 형태차이를 보이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방한용 배자의 시기별 형태 및 특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방한용 배자의 시기별 특징

털배자		누비배자		솜배자	
사진	특징	사진	특징	사진	특징
	<p>19세기-20세기 여자용 털배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자용 배자는 저고리 길이의 변화에 따라 길이가 변화함</li> <li>- 맞깃에 동정이 달림</li> </ul>		<p>1596-1665 김여은 모 솔토 누비배자 (안동대학교박물관 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짧은 소매이며 앞판은 길고 뒷판은 짧은 형태</li> <li>- 깃이 없고 등근 목둘레</li> </ul>		<p>1509-1580 은진 송씨 모 솔토 솜배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좁은 칼깃</li> <li>- 옆선 트임</li> <li>- 겨드랑이 아래 얇은 끈을 앞뒤에 한쌍씩 달아 여밈</li> </ul>
	<p>20세기 여자용 털배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p>		<p>1636-1731 이변 모 솔토 누비배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거리 형태로 앞판은 넓은 끈형태로 구성하고 교차하여 착용</li> </ul>		<p>1574-1669 동래 정씨일가 모 솔토 솜배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덩이를 덮는 길이에 네모깃이 달려있고 옆선 트임</li> </ul>
	<p>연도 미상 남자용 털배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이가 여자배자 보다 김</li> <li>- 앞뒤판의 길이가 같고 앞중심선의 끈으로 여밈</li> </ul>		<p>1647-1702 홍진중 모 솔토 배자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은 길고 뒤는 짧은 형태이며 옆선 트임</li> <li>- 옆선은 겨드랑이 아래 2개 끈으로 연결</li> </ul>		<p>1574-1669 동래정씨 일가 모 솔토 솜배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거리 형태이며 앞판 끝에 얇은 끈이 달려있던 흔적이 있음</li> </ul>
	<p>연도 미상 남자용 털배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뒤판의 길이가 다르며 겨드랑이 아래 끈을 달아 여밈</li> </ul>		<p>17세기 말 은진 송씨 모 솔토 누비배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짧은 소매</li> <li>- 깃이 없고 등근 목둘레</li> <li>- 앞중심에 작은 고름으로 여밈</li> </ul>		<p>1735-1754 파평 윤씨 솜배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모깃</li> <li>- 두 개의 매듭단추로 여밈</li> <li>- 옆선은 트이고 겨드랑이 아래 넓은 띠로 고정</li> </ul>
			<p>연도미상 누비배자(담입복식 미술관 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판보다 뒤판이 긴 형태</li> <li>- 맞깃</li> <li>- 겨드랑이 아래 끈을 달아 앞에서 여밈</li> </ul>		

### III. 작품제작

최근 한류와 한 브랜드 사업 그리고 사극 열풍으로 높아진 전통복식에 대한 관심은 착용성과 편리성, 실용성을 겸한 다양한 한복 디자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배자를 컨셉으로 재현과 현대적 디자인의 두 방향으로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배자 중에서 실용적이면서도 장식성을 가지고 있는 방한용 배자로 한정하여 고찰 한 후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털배자와 누비배자, 솜배자를 선정하였다. 전통배자의 재현은 가능한 한 유물과 같은 소재, 색채를 중심으로 제작하였고 현대복식과 함께 착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형태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현대적 디자인은 현대적인 소재에 비중을 두어 구성하였고 색채와 형태, 디테일 변화도 함께 이루어졌다. 현대적인 디자인을 위한 소재로는 울, 울 체크, 데님, 스웨이드로 전통복식에서 볼 수 없었던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소재변화를 통한 전통배자 디자인 개발과 대중화에 초점을 둔 연구이므로 정확한 형태를 고증하는 작업과는 차이가 있으며 작품제작을 통한 디자인 제시는 향후 관련 산업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단계까지로 한정하였음을 밝혀둔다.

#### 1. 전통 배자의 재현

앞서 살펴본 배자 중에서 털배자 2점, 누비배자 1점, 솜배자 1점을 최대한 유물에 가까운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털배자는 여자용의 짧은 형태와 남자용의 긴 배자를 각각 1점씩 선정하였고 누비배자는 남자용으로 뒤가 길고 앞이 짧으며 고름으로 여미는 형태를 선정하였다. 솜배자는 파평윤씨의 배자로 길이가 짧으며 폭넓은 끈으로 옆선을 연결한 배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배자는 비교적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형태로 최대한 유물과 같은 소재와 색채를 사용하여 재현하였다. 전통배자의 재현은 우리복식의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작업이라 사료되며 원형의 재현과 착용을 통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1) 작품 1

작품 1은 남자용 털배자를 여성용을 재현하였다. 소재는 유물과 같이 갈색의 모본단에 흰색의 토끼털을 받쳤으며 길이는 남자용과 같이 길게 하였고 품을 비롯한 다른 부분들은 여성이 착용하기에 잘 맞도록 조절하였다. 소재와 색채 모두 원형에 가깝게 제작하였다. 맞깃에 동정을 달고 앞은 고름으로 여밀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품과 길이가 넉넉하여 보온성이 좋다는 것이 장점이다.

<작품 1>

재현배자 1			
유물	작품사진 (앞/뒤/부분)		
			
			
	소재	모본단, 토끼털	
	색채	갈색	
	사이즈	길이 69, 품 47, 깃나비 3.5, 동정나비 1.4, 끈나비 4, 끈길이 45, 옆트임 13	

<작품 2>

재현배자 2		
유물	작품사진 (앞/뒤/부분)	소재
	  	화조모본단, 토끼털
		색채
		밝은 청색
		사이즈
		길이 51, 폭 55, 깃나비 4, 동정 1.8

2) 작품 2





작품 2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여성용 털배자를 재현하였는데 시중에서 일치하는 색상의 소재를 구하기 어려워 문양과 색채가 가장 유사한 밝은 청색의 화조모본단으로 제작하였다. 유물의 경우 저고리 위에 입혀지므로 저고리보다 약간 긴 형태이나 재현배자의 경우는 현대복식과 함께 착

용할 것이므로 전체길이를 허리선보다 길게 하고 도련선의 곡선을 완만하게 하여 옆선을 길게 조절하였고 폭은 유물과 같게 구성하였다.

3) 작품 3

작품 3은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남자용 누비 배자로 백색 명주에 솜을 두고 곱게

<작품 3>

재현배자 3		
유물	작품사진 (앞/뒤/부분)	소재
	  	명주
		색채
		백색
		사이즈
		뒷길이 58, 앞길이 53, 폭 40, 깃나비 3, 끈나비 2.5, 끈길이 60

<작품 4>

재현배자 4		
유물	작품사진 (앞/뒤/부분)	소재
	  	명주
		색채
		갈색
		사이즈
		길이 40, 폭 39, 깃나비 5, 옆선 끈 나비 5



누벼 제작하였다. 유물과 같이 맞깃으로 구성하였고 겨드랑이 밑에 끈을 달아 앞에서 여밀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남자 배자를 여성용으로 길이와 품을 원형보다 줄여 구성하였다.

#### 4) 작품 4

작품 4는 파평 윤씨의 배자를 유물과 같은 갈색 명주 소재로 얇은 솜을 두어 제작하였다. 원형과 같이 방령깃을 달고 매듭단추를 달았으며 옆선의 넓은 끈을 두 개씩 구성하여 앞 뒤판을 연결하였다.

## 2. 전통 배자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디자인

유물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현대배자 디자인에 적용할 만한 특징적인 요소인 소재, 깃, 옆선, 여밈 방법, 배자 길이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한을 위한 소재로 겉감은 단이나 명주를 사용하였고 안에 털을 대거나 솜을 두고 누벼거나 그냥 솜을 두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돌찌, 깃의 경우 실루엣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앞길이 마주보는 대금형이며 앞선 시대의 유물에는 깃이 달려 있지 않은 경우도 보였으나 후기에는 오늘날과 같이 맞깃이 주를 이루었다. 셋찌, 옆선은 남자용 배자의 경우 옆선은 대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그림 6>, <그림 7>과 같이 옆선이 부분 또는 완전히 봉제된 경우도 보였다. 그리고 옆선에 <그림 8>과 <그림 14>처럼 옆선에 짧고 넓은 끈을 달아 앞 뒤판을 고정한 경우도 있었다. 반면, 여자용의 <그림 4>, <그림 5>는 옆선이 완전히 봉제되어 있었다. 넷찌, 여밈 방법으로 남성용은 주로 끈을 달아 여미는 방법이 많았다. 끈은 겨드랑이 아래 달거나 앞 중심 양쪽에 달아 묶어 여몄다. 매듭단추도 보였으며 여자 배자는 끈이나 매듭 없이 여미지 않고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셋찌, 배자 길이는 각 유물마다 다양한데 남자의 배자는 <그림 3>과 같이 앞이 짧거나 <그림 6>과 같이 뒤가 짧은 등 좌식생활 또는 용도에 따라 길이에 차이가 많았다. 반면 여자 배자는 저고리 길이로 앞 뒤판의 길이가 같았다. 방한용 배자를 위한 겨울용 소재와 앞이 마주보는 형태에 가장 대표적인 맞깃, 남성용의 옆선 트임과 여성용의 봉제된 옆선, 고품이나 매듭단추의 여밈 방법, 그리고 다양한 배자의 길이를 응용한다면 전통배자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인 전통배자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하여 앞서 재현한 전통배자의 특징을 살리면서 일상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배자를 디자인 하고자 하였다. 배자에 사용된 전통소재를 현대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로 바꾸어 제작하므로 현대인들이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발하였다. 방한용 배자의 특징을 살리기 위하여 보온성이 좋은 울 소재와 울 체크, 스웨이드를 사용하였고 현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 중 하나인 데님을 사용하여 실용적인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질적인 소재와 전통배자의 조합은 현대적인 디자인 개발에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1) 작품 5

작품 5는 수트 용 회색 울 소재를 겹으로 사용하고 흰색 토끼털을 달아 원형과 같은 느낌을 살렸다. 배자의 특징이 되는 맞깃은 그대로 살리고 입술주머니를 양쪽에 달아 실용성과 장식성을 높였다. 몸판에 프린세스 라인을 넣어 착용 시 몸에 잘 맞도록 구성하였다.

#### 2) 작품 6

작품 6은 여성용 배자의 응용으로 원형은 가슴선의 길이나 현대복식과 착용할 때 보온성과 활

<작품 5>

현대 배자 5			
유물	작품사진 (앞/뒤/부분)		소재
			울, 토끼털

<작품 6>

현대배자 6			
유물	작품사진 (앞/뒤/부분)		소재
			울 체크, 토끼털

<작품 7>

현대배자 7			
유물	작품사진 (앞/뒤/부분)		소재
			데님, 패딩 솜

<작품 8>

현대배자 8			
유물	작품사진 (앞/리버시블/뒤/부분)		소재
			스웨이드, 울 체크

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길이를 허리선 아래로 길게 제작하였다. 소재는 울 체크원단을 겹으로 사용하고 가장자리에는 검정 토키털을 사용하여 배자를 제작하였다. 원형보다 전체적으로 길이를 길게 구성하였고 맞깃으로 전통배자 이미지를 살렸다.

3) 작품 7

작품 7은 명주 소재의 배자를 실용적인 데님소재로 제작하였다. 원형과 같이 얇은 솜을 두어 곱게 구성하였으며 배자의 특징인 맞깃과 고름은 원형 그대로 살렸다.

4) 작품 8

작품 8은 명주소재의 배자를 울과 스웨이드를 사용하여 안팎으로 모두 입을 수 있는 리버서블(reversible)로 제작하였다. 방령 깃과 매듭단추는 원형과 같이 구성하였고 옆선의 끈은 두 개로 구성하여 변화를 주었다.

3. 재현배자와 현대배자의 착장모습

본 연구는 전통배자가 현대인들에게 부담감 없이 실용적으로 착용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재현배자나 현대배자 모두 현대 복식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된 작품들을 같은 복식 위에 착용한 사진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동일한 조건의 복식 위에 착용하여야 이미지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배자와 코디네이션 할 복식으로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만한 아이템인 흰색 셔츠와 청바지를 착용하였다. 작품 1과 5, 2와 6, 3과 7, 4와 8은 같은 유물은 모티브로 제작된 배자이므로 비교할 수 있도록 옆에 배치하였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형에 가까운 재현배자도 현대복식에 무리 없이 어울림을 알 수 있으며 현대 배자의 경우엔 전통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소재의 사용으로 현대복



식과 잘 코디네이션 되었다.

## IV. 결 론

우리 민족은 고유의 복식문화를 고대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계승 발전시켜왔다. 현대에는 서양복을 평상복으로 착용하므로 전통복식을 착용할 기회가 많지 않으며 서양복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전통복식 착용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양복과 어울리면서도 손쉽게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 위주의 접근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배자는 삼국시대부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으며 시대마다 다양한 형태가 유물로 전해지고 있으나 대체로 소매가 없으며 앞깃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가 특징적이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형태로 착용되었다. 남녀에 따라 형태에 차이가 있으며 남자의 경우 길이가 길고 옆선이 트여 있으며 겨드랑이 아래나 앞 중심에 끈을 달아 여미는 경우가 많았다. 여자용은 길이가 저고리 길이로 짧고 옆선이 막혔으며 여미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유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조선시대의 기능적이면서도 장식성을 가진 방한용 배자를 중심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방한용 배자에는 털배자, 누비배자, 솜배자가 있었으며 현대적인 활용을 위하여 일반에게 익숙한 형태의 배자 4점을 선택하였다. 남자용 털배자와 여자용 털배자, 앞뒤의 길이가 다른 누비배자, 파평 윤씨 솜배자를 원형으로 최대한 같은 소재와 색채를 이용하여 배자를 재현하였다. 본 연구는 복식고증이 목적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현대복식과 어울릴 수 있는 형태로 부분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같은 유물을 현대적인 소재인 울, 체크, 데님, 스웨이드 등을 이용하여 현대배자로 디자인하였다. 재현배자와 현대적으로 디자인된 배자는 현대생활에서 실제 착

용할 수 있도록 같은 복식 위에 착용한 모습을 제시하였고, 이와 같이 전통복식에 이질적인 현대소재를 사용한 새로운 이미지의 디자인은 실생활에서 서양복과 함께 착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통복식의 현대화 작업은 전통복식의 계승과 함께 복식을 통한 전통문화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전통복식의 아이템들이 현대적으로 활용되고 대중적으로 착용되어 우수한 우리전통복식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1) 문화체육관광부 (2007). 한복진흥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p.195.
- 2) 박두이 (1992). 배자의 양식변천에 관한 고찰, 복식, 19(-), pp.127-140.
- 3) 나현신, 변지연, 문지현, 조윤주 (2009). 노년기 여성을 위한 한국적 이미지의 조끼디자인 개발: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 개념을 바탕으로, 복식, 59(7), pp.77-85.
- 4) 류정민 (2010. 4). 전통 배자에 근거한 현대 패션 배자 디자인 및 코디네이션 연구, 한복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pp.117-120.
- 5) 부혜성 (1999). 현대 패션 디자인을 위한 배자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0.
- 6) 이은형, 조효숙 (2009). 한국 전통 배자의 복식사적 고찰과 현대화 작업, 복식, 59(6), pp.115-130.
- 7) Naver 국어사전(검색어: 배자), 자료검색일 2010. 4. 23. <http://krdic.naver.com>
- 8) 김영숙 (1999). 한국복식사전, 서울: 미술문화, p.187.
- 9) 이경자, 홍나영 외 (2003). 우리옷과 장신구, 서울: 열화당, p.248.
- 1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名選 下, 서울: 석주선기념박물관, p.162.
- 11) 이경자, 홍나영 외. 앞의 책, p.248.
- 12) 이은형, 조효숙. 앞의 논문, p.117.
- 13) 유희경, 김문자 (2002).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87.
- 14) 박두이. 앞의 논문, p.133.
- 15) 조선일보사 편집국 (1993). 집안 고구려 고분벽화, 서울: 조선일보사, p.160.
- 16) 이은주, 조효숙, 하명은 (2006). 길짐승 흉배와 함께

- 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서울: 민속원, p.47.
- 17) 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 복식 2천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p.105.
- 1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名選 中, 서울: 석주선기념박물관, p.1.
- 1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앞의 책, p.162.

# **A Study on Reproduction of the Traditional Baeja and Design Methods for Modern Application**

## **- Focusing on the Winter Baeja -**

**Kim, Weol Kye**

Full-time Lecturer,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 **Abstract**

Korea has maintained its traditional costume culture despite much contact with foreign culture. However, it is considered difficult for modern people who wear western costume as daily dress to wear hanbok now. Because of this situation, there is a higher chance people today will wear traditional clothes if they are designed a one-piece clothing rather than two-piece outfits. The baeja was used as a basis because it is a costume that is sleeveless or short-sleeved and it is easy to wear with any type of inner w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design that adapts the baeja to create a modern look. The baeja has been worn since the three kingdom period and developed into many different types and shapes in the Joseon dynasty. Characteristics of the baeja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modern design are fabric, parallel collars, side seam, length of the baeja, etc. Among the many types of Joseon baeja, this study chose the fur baeja, quilted baeja and padded baeja, which were used as warm-up wear. First, the baeja was reproduced to remain as similar as possible, and then a modern baeja was made by changing color and details such as by using wool, etc. Traditional costume is more than just clothes. It can stimulate interest in traditional culture and have an educational effect on the next generation.

Key words: baeja, Joseon dynasty, reproduction, coordination,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costume